

<서평>

In the Steps of Jesus: An Illustrated Guide to the Places of the Holy Land

(Peter Walker, Oxford: Lion Hudson, 2006)

윤철원*

1. 들어가는 말

특정 지역을 방문하려는 여행자에게 그 곳의 지리와 관련된 정보를 자세하게 알려주는 지도나 자료는 매우 요긴하다. ‘성서의 땅’인 성지(the Holy Land) 방문을 계획하는 여행자에게도 적절한 안내서가 구비된다면 방문의 품격과 내용은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또한 목적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책은 여행시간을 단축시켜주고 만족도도 높여준다. 복음서 이야기의 현장은 팔레스타인이고, 오늘의 시간과 2천년이란 엄청난 시간적 차이가 난다. 시간뿐 아니라 언어, 문화, 사상 그리고 삶의 조건까지 많은 부분에서 간격이 있다.¹⁾ 이런 차이를 인식하는 것은 성지방문을 위한 가장 중요한 물음이다.

성지를 수차례 방문한 서평자에게 성서학이나 역사와 배경 등의 소중한 정보를 담은 이러한 안내서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여운처럼 항상 남아 있다.²⁾ 워커(P. Walker)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In the Steps of

* University of Sheffield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서울신학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신약학 교수. cwyoony@stu.ac.kr.

1) N. T. Wright, 『신약성서와 하나님의 백성』, 박문재 역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29-30. 신약성서는 그 의미들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공명시설과 적절한 배경 속에서 읽고 이해해야 한다. 신약성서는 가능한 한 왜곡 없이, 또한 가능한 한 여러 차원의 의미에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읽혀져야 한다. 신약성서는 그것이 들려주는 작은 이야기들과 큰 이야기를 이야기와 상관없는 “개념들”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방식들로써가 아니라, 이야기들 자체로 읽혀져야 한다.

2) 앞으로 ‘본서’로 지칭하고, 각주에서 ‘저자명과 연도’를 페이지와 함께 표기함. 저자 워커(P. Walker)는 캠브리지대학교에서 고전학과 교회사를 공부했다. 기독교의 입장에서 예루살렘 성지를 연구하기 위해 박사 이후 과정도 밟았다. 또한 성지연수단을 수차례 이끌었고, 옥스퍼드대학교 위클리프 홀(Wycliffe Hall)의 교수로 가르쳤다. 본서는 독일어로 번역되었다. Peter Walker, *Unterwegs im Heiligen Land: Das illustrierte Sachbuch zu den Orten Jesu*, Andreas Leinhäupl-Wille, trans.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2008).

Jesus)는 이러한 면에서 좋은 안내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서의 저자는 성지에 관한 다양한 관심을 표명하며 그곳을 방문한 결과를 소중하게 정리한다.³⁾ 그만큼 본서의 가치가 크다는 말이다. 국내에서도 전공자의 설명이 가미된 안내서가 출판되어 성지방문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만,⁴⁾ 본서처럼 성서학에 기반을 두고 정보를 제공하는 책자는 드물다. 성지여행자라면 누구라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본서가 번역된다면 단숨에 독자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본서는 팔레스타인 성지에 관한 단연 최신의 정보를 제공한다. 서평자는 내용을 검토하면서 저자의 기록목적과, 나아가 본서의 구성과 특징 그리고 장점 등을 제시하여 독자의 편의를 도모하려고 한다.

2. 본서의 내용과 구성

성지관련 책들은 대개 각 지역의 특성을 유사한 형식으로 소개한다. 그렇지만 본서는 색다른 구성과 전문지식을 우리에게 충분히 제공한다. 본서의 전체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서평자의 주된 목적이므로 비평적 관점보다는 효용성과 실용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우리가 여행에 관한 저자의 통찰을 먼저 살펴보면 본서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된다. “여행은 우선 여행자의 마음을 넓혀 준다. 또한 여행은 마음을 깊게 하고, 심지어 마음을 바꿀 수도 있게 한다. 전혀 가보지 않은 새로운 장소에 가서 타자(他者)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들의 이야기(과거나 미래 모두)를 듣고 배울 때 새로운 관점이나 확장된 시야를 가지고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여행이 가져다주는 의미를 부여한다.⁵⁾ 이렇게 개방된 자세를 가진 저자는 서론과 나머지 13장(章)의 내용으로 본서를 구성한다.

3) 저자는 1981년에 예루살렘을 첫 방문한 이후부터 줄곧 성지연구에 매진한다. 박사과정부터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복음서에 나오는 지역들을 탐방했고, 이 지역들과 관련된 신약성서시대를 연구했다. 최근에는 특정문제를 다루면서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를 어떻게 함께 다룰 것인지와 같은 성서신학의 주요 질문과 공관복음서의 다양한 서술 전략(특히 누가복음)을 연구한다.

4) 성서신학의 관점이 강화된 성지 안내서는 다음과 같다. 정양모, 이영현, 『이스라엘 성지: 어제와 오늘』 (서울: 생활성서사, 2010). 번역서로는 J.J. Kilgallen, 『최고의 성지 안내자 신약성경』, 엄철호 역 (서울: 바오로딸, 2012). 기타 안내서는 각 지역에 대한 개략적 소개와 함께 사진을 첨부한 것에 머무는 경우가 더 많다.

5) P. Walker, *In the Steps of Jesus, An Illustrated Guide to the Places of the Holy Land* (Oxford: Lion Hudson, 2006), 7.

서론

- 1장. 베들레헴
- 2장. 나사렛
- 3장. 요단강
- 4장. 유대광야
- 5장. 갈릴리와 인근 마을
- 6장. 사마리아
- 7장. 빌립보 가이사랴
- 8장. 여리고
- 9장. 베다니
- 10장. 올리브산
- 11장. 성전
- 12장. 예루살렘
- 13장. 골고다와 예수의 무덤
- 14장. 엠마오

위의 지명을 살펴볼 때 저자는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공적사역 기간에 방문했거나 수난 내러티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지명들을 선별하여 그 의미를 찾아낸다. 그래서 각 장(章)은 예수의 삶과 관련된 특별한 장소나 지역을 소개하는데,⁶⁾ 첫째, 예수시대의 장소를 찾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여기서는 당시 상황에서 예수의 사역을 이해하는 것이 목표인데, 저자는 예수의 말과 행동에서 우리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 이야기에 나오는 장소의 기능과 역할을 탐색한다. 성서본문에 관심을 갖는 독자라면 이 부분만 참고해도 가치가 있다. 각 부분은 특별한 장소를 개관하므로 성경 이야기들을 차례로 읽는 데 유익하다. 이 과정은 1세기의 여행자 누가(Luke)가 제시한 주제를 따라가며 내용을 검토한다.⁷⁾ 저자는 누가복음의 구조를 따라 각 지명을 탐색하는데, 특히 ‘여행 내러티

6) 저자가 본서를 구성하는 방식은 각 장이 동일하므로 서평자는 필요한 부분은 언급하겠지만 굳이 모든 장의 내용을 소개하지 않고 저자가 기록하는 특징을 주로 소개할 것이다.

7) P. Walker, *In the Steps of Jesus, An Illustrated Guide to the Places of the Holy Land*, 9-10. 저자는 복음서 저자 가운데 유일한 비유대인 작가이며 의사인 누가의 안내를 따른다. 그가 선택된 이유가 세 가지로 제시된다. ① 그의 내러티브는 사람의 생기가 가득하다. 우리가 알아차리기 어렵게 당시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등장한 한 인물, 예수를 이해하고, 그에게 응답하기를 시도하는 사상세계로 이끈다. ② 그는 역사가의 의식을 가졌고, 그의 이야기가 어떻게 실제세계에 닿을 내리며 독자에게 알려진 세계를 제대로 그리는지 보여주는 데 관심을 가졌다. ③ 예루살렘 밖에서 태어난 그는 특히 ‘밖에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그들도 유대인의 이야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낙오되지 않음을 알려주는 데 능숙했다. cf. P. J. Actemeier, J. B. Green and M. M. Thompson, 『새로운 신약성서개론』, 소기천, 이달, 윤철원 공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189, 210-213.

브'(Travel Narrative)인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이다.⁸⁾ 이것은 저자가 총체적으로 읽어야 하는 여행 내러티브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결과이다.⁹⁾ 둘째, 저자가 제시하는 것은 성지방문 전에 미리 알아두면 유익한 내용이기도 하다. 우선 예수 시대부터 2000년간 영향을 끼친 중요한 사건들의 개요가 그것이다. 여기서 독자는 고고학, 특정장소의 진위여부, 기독교 순례자들이나 역사가의 증언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갈릴리 호수에 대한 요세푸스의 기록은 당시 이곳이 어떤 의미를 지녔으며 자연조건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알려준다.¹⁰⁾

갈릴리 호수에 관한 요세푸스의 기록

갈릴리는 주로 평화의 피난처로 상상된다. 주후 67년 발생한 첫 유대 폭동에 대한 베스파시안의 무자비한 탄압이 묘사된 유대전쟁사의 일부에 나오는 호수와 게네사렛 평야에 대한 요세푸스의 기록은 기억할 가치가 있다. 티베리아스(Tiberias)의 시민들은 행복했지만 타리케이아(Tarichaea, 막달라 Magdala)에서 격렬한 전투가 있었다. 또한 호수에서 해전도 있었고 죽은 수(타리케이아에서 사망자를 포함)를 6,500명이라고 요세푸스는 말한다.

그러므로 30년대 초기 같은 해변에서의 예수 사역은 혁명의 가장자리였던 갈릴리에서 있었고,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그의 교훈은 잘못 이해하면 전 지역에 불길게 치솟게 만드는 불씨로 쉽게 작용했을 것이다.

여기에 갈릴리 호수와 게네사렛 평야에 관한 요세푸스의 기록이 있다:

게네사렛 호수는 인접해 있는 지역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 그 폭은 40펠롱(1펠롱에 220야드 또는 201미터)이고 그 길이는 140펠롱이다. 물은 달아서 마시기에 매우 적합하다...그 호수는 또한 깨끗하고 모든 면이 기슭으로 연결되어 끝난다. 또한 호수를 떠올려보면 그 온화한 기질이 생각한다. 강이나 샘물보다 더욱 온화한 것 같지만 언제나 예상보다 차갑다. 그런데 이 물이 대기에 노출되어 있을 때는 여름밤에도 눈이 내리는 나라에서의 눈처럼 차갑다. 호수 안에는 보기에도 다르고 맛도 제각기 다른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있다. 호수는 요단강에 의해 두 부분으로 나뉜다...

8) P. Walker, *In the Steps of Jesus, An Illustrated Guide to the Places of the Holy Land*, 11-12. 누가복음에서 여행 내러티브는 40%를 차지한다.

9) C. M. Tuckett, *Luke, New Testament Guide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27.

10) P. Walker, *In the Steps of Jesus, An Illustrated Guide to the Places of the Holy Land*, 66.

이 호수 주변에 위치한 지역도 게네사렛이라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 기후는 지역이 아름다운 만큼 환상적이다. 토양은 매우 비옥하여 모든 종류의 나무가 자라고, 따라서 주민들도 모든 종류대로 나무를 심는다... 이 지역은 본성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식물들이 서로에게 순응하게 만드는 곳이기에 자연의 희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곳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종류의 가을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들을 오랫동안 보존하기도 한다. 또한 한 해에 열 달 동안 지속적으로 포도와 무화과 같은 주요 과일을 생산하며 다른 과일들도 연중 내내 순서대로 무르익는다. 매우 좋은 기후 외에도 가장 풍부한 샘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이곳을 가버나움이라고 부른다...

유대전쟁사(*Bellum Judaicum*) 3:10

그는 다른 곳에서도 갈릴리를 불만의 온상이었던 인구과잉 지역으로 묘사한다:

갈릴리는 상부와 하부로 나뉜다. 이렇듯 굉장히 크고 다양한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는 갈릴리의 두 지역은 전쟁 시에 언제나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었다. 갈릴리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전쟁에 단련되어 있었고, 언제나 수적으로도 매우 많았으며, 그 지역에는 용감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다수의 용기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했다. ... 게다가, 이곳에는 도시들이 밀집해 있었고 매우 많은 마을들, 그 어디에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토양이 비옥해서 최소한 15,000명 이상의 거주자들이 살고 있었다.

유대전쟁사(*Bellum Judaicum*) 3:3

성지를 방문해 본 독자라면 비잔틴시대에 건축되었거나 심지어 최근 개축된 교회들을 둘러본 많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기독교의 오랜 역사에서 성지는 많은 선배들의 관심과 애정이 숨 쉬는 곳이었다. 유대교는 당연하지만 로마가톨릭교회와 정교회의 사제나 수도자를 비롯하여 많은 평신도들이 지금도 이곳을 순례하기를 학수고대한다. 그래서 순례자들의 흔적이 남은 기록들도 성지이해에 도움이 된다. 베다니에서 열린 종려주일에 대한 예게리아 수녀의 일기는 성지에서 행한 당시 풍습을 고스란히 전해준다.¹¹⁾

앞에서 언급한 두 부분 사이에는 각 장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한 장소와 관련된 주요 연대가 소개된다. 즉 예수 탄생 이전부터 성서-이후(post-biblical)

11) P. Walker, *In the Steps of Jesus, An Illustrated Guide to the Places of the Holy Land*, 114.

에게리아(Egeria)의 베다니 방문

아래는 에게리아가 종려주일 전 토요일, 베다니의 라자리움(Lazarium)에서 드린 기도를 묘사한 내용이다.

한시가 되면 모든 사람이 라자리움, 즉 베다니로 간다...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라자리움으로 가면...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주님을 만났던 거리에 교회가 있다. 여기서 주교가 도착하여 모든 수도자들이 그를 만나면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 길은 복음서에서 나사로의 여동생이 주님을 만난 길이라고 나와 있다. ...

그러면 그들은 뒤이어 찬송을 부르며 라자리움으로 들어간다. 라자리움에 도착하면 매우 큰 무리가 있어 그 장소뿐만 아니라 주변 들판까지 사람들로 넘쳐난다. 그날과 장소에 적합한 찬송가와 응답 송가가 불리고 마찬가지로 모든 일과가 낭독된다. 그러면...사제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복음서에 있는 본문을 읽는다(‘예수가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가시니라’ 등). ...그날은 이렇게 끝이 난다. 왜냐하면...이 사건이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에게리아 29:3-6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여행하다보면 에게리아를 자주 언급하게 된다. 그녀의 갈릴리 방문 이후의 언급은 이미 논한 바 있다(5장 갈릴리와 주변 마을 참고). 그녀는 누구인가? 그녀의 일기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에게리아는 스페인의 수녀로 추정된다. 그녀는 주후 381-384년에 로마제국의 동부를 여행했다. 그녀는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출발하여 부활절을 축하하는 시기에 맞춰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 이후 그녀는 3년 동안 성지에 머물며 이집트와 시내 광야, 느보산과 갈릴리를 여행했다. 384년 부활절 이후 그곳을 떠나 안디옥과 에뎃사(Edessa)를 거쳐 콘스탄티노플로 돌아갔다. 이 모든 거리를 노새를 타고 이동하거나 걸어서 여행한 것으로 보아 그녀는 불굴의 의지와 강인한 체력의 소유자였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수녀원 공동체에 대해 집필하며 여행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한다. 남아 있는 원고 가운데 하나는 1884년에 아레조(Arezzo)에서 발견되었고 그때부터 기독교 성지순례가 콘스탄티누스의 2세대 동안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한 통찰을 주는 주요 문서로

인정받고 있다. 신약성서에 언급되는 거의 모든 지역이 확인되었고 (구약성서의 몇 군데도 확인됨), 많은 곳이 교회 건물로 표시되었다. 수많은 순례자들이 제국의 전 지역을 넘어서는 곳에서 성지를 방문하기 위해 왔다. 많은 수도자들과 수녀들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 머물기 위해 방문하기도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달력이 적절한 시기에 맞춰 특정한 복음서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개발되었다는 것이다. 이 ‘교회력(liturgical year)’은 예루살렘의 주교 시릴에 의해 착안된 것으로 보이며 다가올 세대의 세계교회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명되었다. 몇 축제는 감람산의 겿세마네나 정상 근처에 있는 **엘레오나(Eleona)** 교회에서 열린다. 그러나 대부분은 골고다 전역의 다양한 건물과 예수의 무덤이 있는 자리에서 개최된다. 에게리아는 이를 ‘대교회’(great church)나 ‘**마티리움**’(Martyrium, ‘증인’을 의미), ‘십자가 이전’의 지역, 그리고 ‘**아나스타시스**’(Anastasis, ‘부활’을 의미)라고 언급한다. 또한 그녀는 예배의 정확한 때와 장소에 따라 말씀이 신중하게 맞춰졌던 것에 대한 희열을 자주 언급한다.

다음은 384년 종려주일에 에게리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의 입장을 기념하는 것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보여주는 발췌문이다. 비록 명쾌하지는 않지만 주교 시릴이 효과적으로 예수를 당나귀 위에 앉힌 것으로 보인다.

부활절 주간이 시작되는 주님의 날에...모든 사람이 집에서 서둘러 먹고 주님이 가르치셨던 동굴이 있는 감람산의 엘레오나(Eleona)로 한 시까지 가기 위해 준비한다. ...세시에는 찬송을 부르며 임보몬(Imbomon,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곳)으로 올라가고 그곳에 자리를 잡고 앉는다(주교가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앉아야 한다). ...

다섯 시쯤 복음서가 낭독된다(어린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 가지를 옮기던 곳). ...주교는 즉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고 걸어간다. ... 찬송과 응답 송가를 부르며 서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복이 있다.’ 또한 이곳에 있는 아이들과 걸을 수 있는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어깨에 올라타 종려나무와 감람나무 가지를 들고 옛날에 주님께 했던 것처럼 주교를 호위한다. 남녀노소 모두가 산 정상에서부터 도시까지 걸어서 주교와 동행한다.

에게리아 30-31

시대가 포함된다. 이것은 예수가 세계사의 중심에서 실제로 활동했음을 제

시하며 내용을 하나로 묶어준다. 여전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에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 주전(B.C.)과 주후(A.D.)로 구분한다. 주요 연대표에서 독자는 다른 장에서 언급된 참고 문헌과 인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저자의 세심한 배려로 독자가 특정 지역의 역사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게 해준다. 하나의 사례로 빌립보 가이사라의 역사를 보면 쉽게 공감한다.¹²⁾

주요 연대표: 빌립보 가이사라

주전(BC) 약 197년, 시리아의 셀류시드 제국(Seleucids)이 파니아스(Paneas) 근처에서 이집트의 프톨레미 제국(Ptolemies)을 정복함. 이 지역은 시리아의 지배 아래 들어감.

주전 20년,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판(Pan) 샘’ 근처에 흰 대리석 신전을 건축한 헤롯 대왕에게 이 지역을 하사함.

주전 2년, 헤롯의 아들 빌립이 빌립보 가이사라를 자신이 통치하는 ‘1/4영지’(tetrarchy)의 수도로 삼음. 자신과 황제의 이름을 따라 도시 명칭을 개명함.

주후(AD) 55년, 헤롯 아그립바가 도시의 이름을 네로 황제의 이름을 따라 ‘네로니아스’(Neronias)로 개명을 시도함.

주후 70년, 디도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 이 지역에서 시간을 보냄. 다수의 유대인 죄수가 여기서 죽음.

주후 300년, 유대인들이 계속 살고 있었지만 기독교회가 설립되는데 문제없음. 유세비우스는 여기에 보존된 예수가 치유한 혈루병 여성의 조각상을 언급(*Ecclesiastical History* 7:18).

주후 1100-1300년, 십자군과 이후의 (이집트 및 시리아를 지배한) 맘루크 왕조(Mamluks)에게 여러 번 정복당함.

주후 1967년, (현재 바니아스[Banyas]로 알려진) 위치에 세워진 작은 시리아 마을이 이스라엘에 편입됨.

12) Ibid., 99.

주요 연대표가 제공되고 더 자세한 배경정보가 첨가된다(예, 역사, 지리, 문화나 고고학). 다양한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야말로 성지와 같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장소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아래 내용은 본서 4장의 유대광야와 관련된 내용으로 지질학적 특징을 설명한다.¹³⁾

광야의 지질학적 특징

성지는 지중해 해안을 따라 비옥한 지역부터 북에서 남으로 향하는 중앙산맥의 지역까지 매우 다양하다. 또한 중요한 두 광야가 있다: 남쪽에는 이집트의 시나이 광야까지 가로지르는 네게브와 동쪽에는 그보다 훨씬 작은 유다 광야가 있다(북에서 사해 서쪽으로). 유다 광야는 언덕 지형 덕분에 생기는 ‘강수량이 적은 지역’(rain shadow)에 속한다. 지중해로부터 오는 비구름이 언덕을 지나면서 상승하기에 많은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이 지역이 요단강 쪽으로 천천히 내려오기 때문에 연간 강수량은 현저히 줄어든다. 사람이 정착하여 농사를 짓는 것은 점점 어려워진다. 다른 사막과 다르게 유다 광야는 모래 언덕에 의해 뒤덮여 있지 않다. 그 대신 많은 바위 언덕이 있는데, 그들 중 몇몇은 매우 둥글다. 또한 가파른 산골짜기도 많아 이것은 마른 와디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일 년에 두세 번 정도 ‘갑작스런 홍수’를 나타낸다. 물은 귀하지만, 몇 개의 샘과 작은 오아시스들이 있기 때문에 사막에 익숙한 사람들은 멀리 가지 않고도 물을 구할 수 있다.

지리학적으로 더 높은 유다 광야의 서쪽 지역은 ‘시리아 초원’(Syrian Steppe)으로 불린다. 이곳은 유목민들(베두인 같은)이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비가 내린다. 동쪽으로 가면 사하라 사막과 비슷한 바위 사막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더운 여름이 오기 직전의 봄에는 잡초와 야생화들로 뒤덮인 모습을 잠시나마 연출한다. 우리는 마침내 동아프리카의 지구대와 연결되어 있으며 해수면보다 낮은 요르단 계곡에 도착한다. 그러므로 여리고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짧은 여정(총 26km)에 예수와 제자들은 적어도 4개의 중요한 지리적인 장소를 통과했을 것이다: 요르단 계곡을 출발하여 사막과 초원을 거쳐, 언덕에 위치했기 때문에 지중해의 구름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예루살렘까지 말이다. 그들은 3000피트(914m) 넘게 올라가야 했다: 예루살렘은 해수면에서 최소 2400피트(750m) 높은 곳에 있었고, 사해는 해수면보다 1350피트(411m) 낮았다.

13) Ibid., 54.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저자는 누가복음의 이야기 구조를 따라 예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성지에 관한 여러 정보를 세심하게 담아낸다. 성지에 대하여 제시된 다양한 정보는 독자가 성지를 방문할 때 뿐 아니라 성서 이야기 속에 들어 있는 예수 이야기를 읽을 때 필수적인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다.

3. 본서의 특징과 장점

저자는 본서의 목적을 성지여행의 기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면서,¹⁴⁾ 복음서의 여러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자나 순례자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성지방문 직전이나 방문한 후 본서를 읽으며 여행을 준비하거나 그 지역을 추억하며 정리하는 데 편리하다고 덧붙인다. 그만큼 여행자에게 실제적 도움이 되도록 세심하게 편집되었다.¹⁵⁾ 저자가 의도한 이러한 목적은 본서를 들고 사용할 때 쉽게 공감하게 된다.

여행은 현대인들과 뗄 수 없는 필수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본서는 성경의 여러 장소를 일주(一周)할 수 있게 구성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방문자가 찾고 자주 마스크를 장식하는 이스라엘로 향하도록 초대한다. 그렇지만 저자는 중동의 화약고(火藥庫)로 불리는 이 지역의 정치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한다.¹⁶⁾ 저자는 누가복음의 여행 내러티브에 근거해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추적할 뿐이다. 이처럼 저자의 누가에 대한 평가는 매우 호의적이다.¹⁷⁾ 누가복음은 짧은 서문 이후 곧이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동한다. 여기서 저자의 독특한 서술방식이 드러나는데, 그는 누가가 제시하는 신학적 차원까지 포착하려고 의도한다. 누가는 전하는 이야기 속의 이야기, 즉 예수 이야기에 포함된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보라고 권한다. 이런 관

14) Ibid., 7.

15) 실제로 페이퍼백(paperback) 200페이지로 출판되어 여행기간에 직접 활용하기에 용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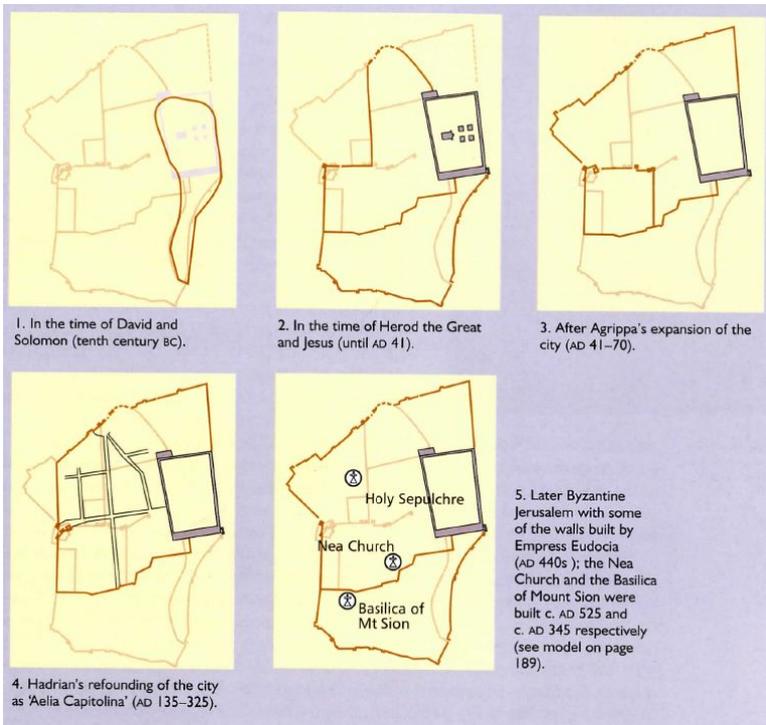
16) P. Walker, *In the Steps of Jesus, An Illustrated Guide to the Places of the Holy Land*, 15. 이 점에 대해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밝힌다. “이런 동시대의 문제들이 다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오늘날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 문제에 관하여 고통스런 인식이 없을 거라고 상상하는 뜻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감추거나’ ‘미화하는’ 방문은 실제로 일어나지만 이것은 그들이 외면하는 문제를 더 키울 뿐이다. 당시 상황의 예수사역에 집중하는 것이 오늘날 성서의 땅에서 발생하는 고통스런 역설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17) Ibid., 10. 누가는 여행광이었다. 그는 복음서의 속편인 사도행전을 쓴다. 그 책은 누가가 북부 그리스부터 예루살렘까지 여행했으며 팔레스타인에서 로마까지 가는 등 자주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그는 실제로 여행을 했다. 그리고 그의 저작들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여행으로부터 오는 통찰력을 제공하며 그의 독자들이 예루살렘으로/으로부터의 영적여행을 하도록 초청한다.

점에서 본서는 성서신학의 주요주제인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연속성 문제를 중요하게 취급한다.¹⁸⁾ 그 결과 저자는 예수를 역사의 흐름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내러티브의 전환점이자 연결점이라고 말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예수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¹⁹⁾ 이처럼 저자는 처음부터 예수 이야기를 중심에 배치한다.

신학적으로 중요하거나 내용적으로 인지할 사항은 어김없이 강조하여 독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본서의 특징 중에서 가장 눈에 들어온다. 본서는 역사적이며 현대적인 관점에서 성서의 땅을 분석한다. 이 책은 예수의 여정을 따라가며 그가 여행했음직한 장소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었다. 역사적으로 발생한 중요사건들과 관련된 장소들에 대한 설명은 독자에게 매우 유용하다.²⁰⁾ 본서는 예수시대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렇다고 고대

그림 1 예루살렘 성벽이 시대마다 변화된 지도



18) I.H. Marshall, 『신약성서신학』, 박문재, 정용신 역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6), 15-53. 구약성서는 신약성서 저자들에게 핵심범주들과 전체 구조를 제공해주었고, 이렇게 해서 주어진 구원사라는 큰 구조를 신약성서의 저자들은 그 원래 의미를 밝혀내는 방식으로 해석했다.

19) P. Walker, *In the Steps of Jesus, An Illustrated Guide to the Places of the Holy Land*, 10-11.

20) Ibid., 169, 그림 1, “예루살렘 성벽이 시대마다 변화된 지도”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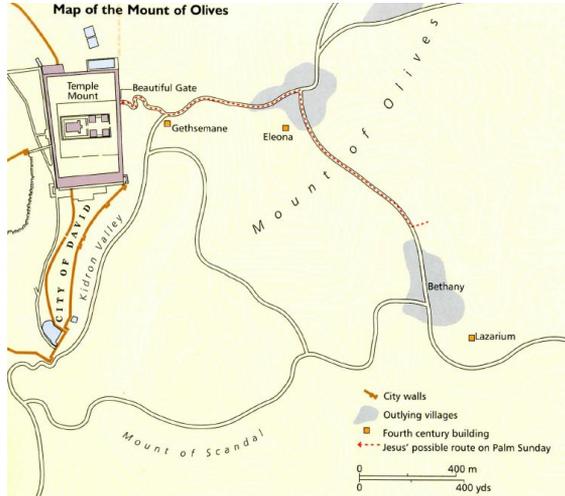
(古代)에 머물지 않아 오늘날의 여행자들이 활용하기에 요긴하다. 뿐만 아니라 저자의 배려는 방문자가 알아야 할 기본정보까지 제공하여 여행 안내서로 결코 손색이 없다.²¹⁾

더불어 지적할 것은 본서의 전개가 역사적이고 현대적인 차원을 끌고루 섭렵한다는 점이다. 제시되는 지도(地圖)를 통해 독자는 이러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²²⁾ 그래서

본서를 읽는 동안 성지를 여행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 그래서 서평자는 저자의 의견에 공감하며 성서학자로서 성지에 관한 최고 전문안내서라는 찬사를 보내고 싶다. 성서와 팔레스타인의 지리에 관한 정통한 전문지식에 근거할 뿐 아니라 1세기의 역사와 배경을 설명하는 저자의 노력에 감탄하게 된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건과 내용을 따라 서술하는 저자의 독특한 방식은 주석을 참고하는 것 같은 학습효과를 더해준다. 또한 색인처리와 함께 더 읽고 참고할 책을 제시한 것도 값지다.

무엇보다 저자가 제공하는 자료의 풍부함이 놀라울 따름이다. 저자는 우선 신약성서시대를 이해할 때 반드시 참고할 요세푸스(Josephus)의 자료를 인용하여 예주시대의 정황을 자세히 밝힌다. 요세푸스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지를 복음서 밖에서 가장 분명한 증거를 제시한다.²³⁾ 다음으로 그가 저술한 초기 저작만큼이나 중요한 10권의 교회사

그림 2 올리브 산 지도



21) Ibid., 40-42. 최근 조성된 ‘나사렛 마을’(Nazareth Village)은 성 수태고지 교회의 남서쪽에서 1/2마일정도에 위치한 고대의 계단식 비탈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나사렛의 새로운 관광명소이다. 예를 들어, 나사렛 마을에서 1세기의 회당이 재건된 것(모두가 1세기의 기술과 자재라고 알려진 것을 사용하여 건설된)을 볼 수 있거나, 공인된 ‘1세기’의 식사를 커다란 천막에 앉아 먹을 수 있다. 또한 예주시대 마을의 생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다른 특징들도 있다. 이 마을은 예주시대에 존재했음이 틀림없는 고대 비탈길에 위치해 있다. 현대 개발로부터 보호된 이 지역을 여행하며 소년 예수가 걸었을 진귀한 풍경과 산비탈을 감상할 수 있다.

22) Ibid., 121, 그림 2, “올리브 산 지도” 참고.

23) Ibid., 14. 요세푸스를 읽는 것은 복음서 저자들이 상상의 나라를 펼친 것이 아니라 실제 세계에 기반을 두고 다른 자료로부터 증명될 수 있는 글을 썼음을 알려준다. 그것은 또한 예

(Ecclesiastical History)를 저술한 유세비우스(AD 260-339)의 인용도 눈에 띈다. 그는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제국(이후 비잔틴 제국)을 지배하던 중요한 시기에 팔레스타인의 주교였다.²⁴⁾ 저자는 보르도 순례자(the Bordeaux pilgrim, 주후 333년에 짧은 여행기를 쓴 인물)와 에게리아(Egeria, 스페인 수녀이며, 주후 381-384년에 3년간 동방을 여행한 긴 일기를 씀), 그리고 4세기 중반 예루살렘의 주교였던 시릴(Cyril, 주후 315-384)이 348년 사순절에 성묘교회에서 세례예비자들에게 전한 18개의 교리문답강의(*Catechetical Lectures*)와 제롬(Jerome, 주후 384년 베들레헴에서 살던 성서학자)을 인용한다. 그들이 포함된 이유는 복음서 지역의 방문자들 누구나 성지가 초기 비잔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향을 받았음을 쉽게 알 수 있고, 성지의 풍경이 그때 급격하게 변했기 때문이다. 고고학의 관점에서 비잔틴 시대를 지나지 않고는 예수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지적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 원하던 원하지 않던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보다 그곳을 먼저 방문한 순례자들이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 저자는 본서의 출간을 통해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하며, 예수가 탄생한 곳을 완전히 새롭게 볼 수 있는 렌즈가 제공되길 또한 바란다. 그러나 저자가 누가복음의 내러티브 순서를 따라간다고 할 때 보다 명쾌하게 의견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더불어 지적할 것은 본서의 수준이 높아 연구자들이나 신학전공자들에게는 요긴하고 내실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지만, 전문지식이 없는 평신도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보인다는 점은 약점일 수 있다. 이러한 단점에도 본서가 번역되어 출간된다면 성지 안내서로서 한국교회의 성지방문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 또한 성지연수를 계획하는 모든 목회자들과 신학도들에게는 더 없이 귀한 선물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수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정치불안을 상기시키고 또한 그곳이 사회적으로 안정되거나 축복받은 지역이라는 통념을 버리게 한다. 요세푸스를 읽음으로 복음서 저자와 예수의 소리를 더 실제적이고 대담한 방법으로 잘 들을 수 있다.

- 24) Ibid., 14. 그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전기도 집필했다. 또한 성서와 지역문제에 대한 많은 책을 썼다. 팔레스타인 순교자들의 역사(성지의 그리스도인들은 주후 303과 310에 로마제국의 심한 박해를 받음), 시편 주석, 성서지역을 알파벳순으로 정리한 지명색인(*the Onomastikon*). 주후 290년에 처음 발간된 마지막 책은 복음서에 나타난 지역들이 예수 이후 300년 동안 어떻게 기억되었는지(그 반대이든)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복음서 지역의 진위를 판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주제어>(Keywords)

예수, 성지, 여행/순례, 누가, 누가복음, 비잔틴 시대.

Jesus, The Holy Land, Journey/Pilgrimage, Luke, the Gospel of Luke, the Byzantines.

(투고 일자: 2015년 2월 3일, 심사 일자: 2015년 2월 27일, 게재 확정 일자: 2015년 2월 27일)

<참고문헌>(References)

정양모, 이영현, 『이스라엘 성지: 어제와 오늘』, 서울: 생활성서사, 2010.

Actemeier, P. J., Green, J. B. and M. M. Thompson, 『새로운 신약성서개론』, 소기천, 이달, 윤철원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Kilgallen, J. J., 『최고의 성지 안내자 신약성경』, 엄철호 역, 서울: 바오로딸, 2012.

Marshall, I. H., 『신약성서신학』, 박문재, 정용신 역,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6.

Tuckett, C. M., *Luke*, New Testament Guide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Wright, N. T., 『신약성서와 하나님의 백성』, 박문재 역,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Abstract>

**Book Review — *In the Steps of Jesus:
An Illustrated Guide to the Places of the Holy Land,*
(Peter Walker, Oxford: Lion Hudson, 2006)**

Cheol-Won Yoon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view is to investigate the significance of *In the Steps of Jesus, an Illustrated Guide to the Places of the Holy Land* in order for the reader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text. How beneficial would it be to have a book like this, when planning a pilgrimage to the Holy Land? One of the most significant questions and answers while on a visit to the Holy Land is to perceive its temporal, linguistic, cultural, ideality and conditional differences of past and present. With a detailed analysis of the history and politics, this book becomes valuable as a guidebook as well as suitable for academic purposes. The basic structure of this book retraces the life of Jesus as each chapter follows the course of his footsteps and introduces the respective region and place. Here, the author takes on this process by investigating each place in accordance with the structure of the Gospel of Luke. In effect, the main purpose is to have a better comprehension of the ministry of Jesus at that time by looking at the locations and their significance mentioned in the Bible.

Accordingly, this book not only helps the reader to follow the Biblical stories(the Gospel) in order, but also provides an ample knowledge to prepare oneself before visiting the Holy Land. In particular, the reader is able to acquire overall background information(ex: history, geography, culture or archeology) at one view regarding the specific area dealt in each chapter with a chronological table through careful concern of the author. Moreover, the author invites the reader to read this book before the visit to prepare oneself and after to sum up one's impressions as well. As the book unfolds in both historical and modern contexts along with the provision of detailed maps, the reader is able to visualize as if he/she is on a pilgrimage in person. Subsequently, the specialized guidance to the Holy Land deserves of one's attention that is worth taking the time to

read. It is also interesting to notice that this book makes reference to prominent figures such as Josephus, the Bordeaux pilgrim, Egeria, Cyril, and Jerome. This is apparent in the presence of the Holy Land, where the influence of early Byzantine period unto Christians was huge. Churches were starting to be found at this time, when the Bible was often abused and burnt before. Hence, it is impossible to go back to the era of Jesus without passing by the Byzantine period in an archeological point of view.

Whether willing or not, it is essential to realize that there are numerous pilgrims who have already followed the footsteps of Jesus. At the same time, however, there are not as many scholars who have approached their studies in this manner. This book may hopefully be a solution to these problems as well as a fresh lens that provides a new perspective to see the birthplace of Jesus. Finally, Israel has become one of the most popular attractions in the world that receives much of the media limelight. The author invites the reader to this place; yet, purposely remains silent to the political issues. The author goes on to explain that the complex matter will require another lengthy volume in order to focus on the core problem.

Overall, when this book get published, it will not only increase the level of pilgrimage culture of the Korean Churches as a guidebook to the Holy Land, but also a gift for pastors and seminarians who are planning academic visits.